##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1. 성령강림후 셋째주일 및 성찬주일

오늘은 성령강림후 셋째주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 2. Constituting Church Conference

지난주에 Constituting Church Conference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공식적으로 Fresno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가 되었습니다.

### 3. 연합감리교회 총회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독임기 제한 안건은 부결 되었고, 동성애에 대한 안건은 총회감독회의의 권고로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 습니다. 부흥하는 아프리카연회 5명의 감독을 더 두기로 했습니다.

### 4. 모임안내

- 1) 실행위원회: 오늘 예배후에 모입니다.(지난주에 드림팀에 모였던 분들이 함께합니다.)
- 2) 6월22일(수)-24일(토): 칼네바다 연회 (Burlingame CA)
- 3) 차터링 인준식(6월25일-토)

### 5. 성경공부

이번주 수요일 성경공부는 없습니다. 토요일 성경공부는 있습니다.

# 6. 다음주 설교안내 (6월12일 주일)

Partner in Ministry에서 함께하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한의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의준 목사님은 7월1일부터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로 파송됩니다.

7. 졸업을 축하합니다.

차제시카 (6월7일), 구지혜(6월8일)/ 졸업축하예식: 6월19일 주일

###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회중기도	성경봉독	점심봉사
06월05일	김규현 목사	홍윤기 권사	윤문섭 홍윤기 안광빈
06월12일	구자홍 집사	이용숙 집사	임동재 구자홍 차석준
06월19일	김형기 집사	차경미 집사	김현덕 안광빈 김형기
06월26일	윤문섭 장로	임정원 집사	차석준 김형기 윤문섭
6월안내	이용숙 임경희	6월촛불점화	차경미 차석준



Fresno **후레스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299-0240 www. fkumc.net fkumc@fkumc.net

# 목회자칼럼



# 뜨거워짐

지난 주간 "남기주 영성일기 세미나"를 섬기고 왔습니다. 작년에 북가주 영성일기 세미나를 진행한 인연으로 돕게 된 이번 세미나는 특별했습니다. 우선, 세계한인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LA 지역 한인 목회자들이 함께하니 말 그대로 복음의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들과 번영신학의 최전선이었던 LA지역 교회의 목회자들이함께하니 특별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정신없이세미나를 진행하기에 바뻐서 이번에는 좀더 세밀하게 세미나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27개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들을 공항에서 라이드하고 호텔예약을 확인하고 갑자기 못오게 된 분, 새롭게 오시게 된 분들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를 나누는데 전혀 방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찬양할 때 참가자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예상치 못한 섬김과나눔에 눈물을 흘리는 은혜의 시간.

참가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이 모인 세미나가 오랜만이라고, 교단과 교회 상관없이 그저 은혜에만 집중해본 시간이 처음이라고, 그러니 더 좋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이구나. 스케쥴이 꼬이고, 숙소가 흩어러져도, 스무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온 피곤함이 몰려와도서로 함께하고, 용납하려고 하니까 불평도 없고 화도 없고, 서로에 대한 용납과 신뢰가 있으니, 어떤 상황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의 가장 큰 음모는 교회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교회와 저교회를 갈라놓고, 교회안에 성도들을 갈라놓고, 교회를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LA 지역 한 목사님이 남가주 지역 교회에 큰 위기에 빠진 것 같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번영신학의 한계가 온것이지요, 번영은 교회를 경쟁으로 몰아넣었고, 그 선두에 섰던 교회 들이 오히려 위기에 몰려든 현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민음의 능력은 서로를 용납하면서 드러납니다. 성령충만의 능력도 서로를 용납하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일치할 때 우리는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포된 복음에 응답한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잊지 말아이합니다. 훌륭한 건물, 풍요로운 물질이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통해 우리들은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저와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6월5일 성령강림후 세번째주일

Partner in Ministry - 6월12일 한의준 목사설교 Annual Conference - 6월22일(수)-6월25일(토) Burlingame CA



かりとうなっているからいか

# 기도와나눔



# 소개합니다



2016년 6월5일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Worship	찬양팀	
٠	입례송 Anthem	다함께	28장 (통28장)

۰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김규현 목사	

##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홍윤기 권사	롬 15:7-13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 智慧의 岩型工士 全对

##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91장(통91장)
٠	찬양 Hymn	다함께	1장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성만찬식 (Holy Communion)		
۰	축도 / Benediciton	김규현 목시	ŀ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 예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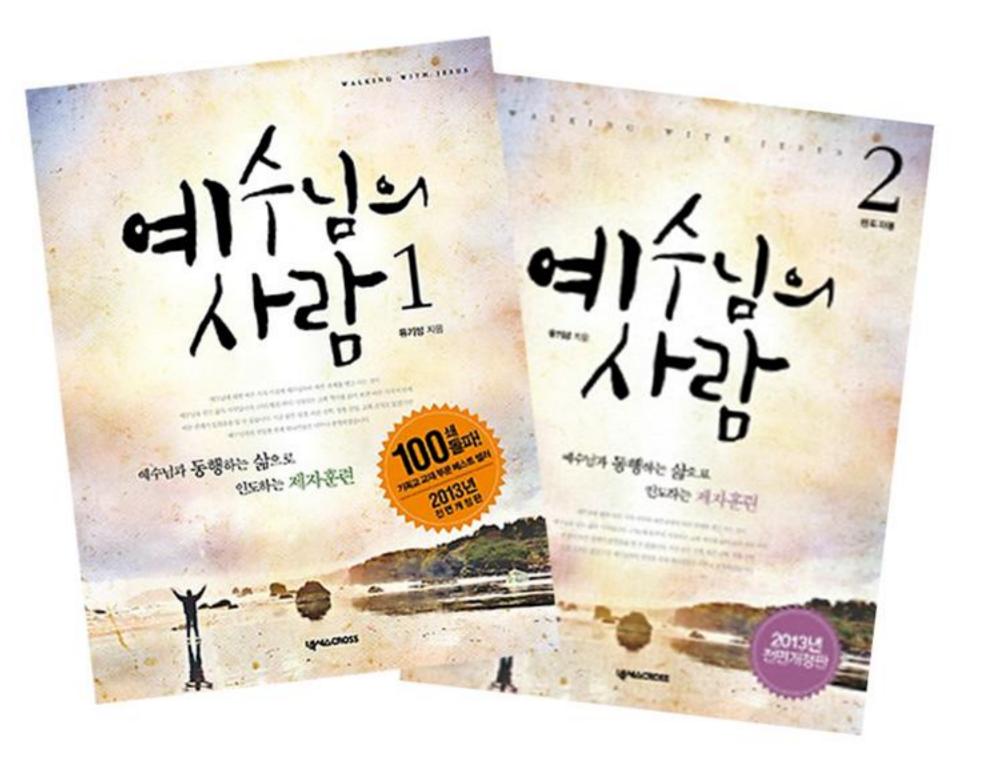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시	바울서 <mark>신 강해</mark>
수요성경공복	부 저녁7시30분	예수님의 사람 회의실
주일예배	1부: 오전08시30분 2부: 오후12시30분	교회력설교
토요아침성	경공부 아침7시	예수님의 사람

#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 1.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2.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위하여
- 3.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 4. 교회학교사역을 위해서
- 5. 질병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 6.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 7. 이용숙 집사의 빠른 회복을 위해
- 8. 2016년 Cal-Nevada Conference 진행을 위해
- 9. 최성보 집사 장인, 최주리아 아버지 심장수술을 회복을 위해 6월생일자

구자홍 집사, 김경호 집사, 김경수 성도(6/17), 김은정 집사(6/25)

◈함께 나눌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 2016년 성경공부

# 예수님의 사람

# 지난주 헌금 통계

주일헌금	데브라 브래디 이수경 정윤희 짐토마스 김혜진 임수호 차제시카 최승희 최미란 차석준 차경미 한순옥
감사헌금	김경호 이용숙 김규현 홍윤정 임동재 임정원 최동수 박준희 최성보 최줄리아 홍윤기 김의숙
십일조	장영심 <mark>홍</mark> 윤기 김의숙
부흥회	김규현 <mark>홍</mark> 윤정 김혜진
속회헌금	합계 \$1,339.00

## 영성일기세미나



# 6월 설교안내

# 주제: 성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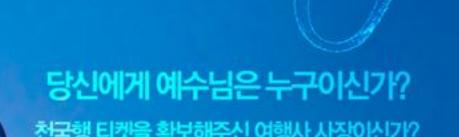
6월 5일 성령의 능력과 소망(롬 15:7-13)

6월19일 성령의 사람 (행 19:1-7)

6월26일 성령의 열매 (갈 5:16-24)

7월3일 성령의 교회 (행 2:36-47)





그분은 부활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하다. 그분이 진정으로 당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구멍 난 <del>복음을</del> 기워라〉 박영철

